

自由主義의 哲學的 解明①

朴致祐

概念의 참된 意味를 決定하는 가장 決定的인 要素는 이 概念이 文字로서 가질 바 字義가 아니라 文字가 그를 向하여 志向하며 概念이 그 우에서 살고 있는 그의 『現實』일 것이다. 字形과 發音은 如前함에도 不可하고 한 概念의 內容이 때로는 當初와는 全然 判異한 反對物에까지 自身을 轉身하는 例가 적지 歟함도 이 때문이다. 自由主義라는 한 개의 概念도 또한 이에 對한 例外일 수가 없다. 그저 字義만에 依據하여 無責任하게 『自由主義란 自由를 主張하는 主義이다』하고 簡單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以上 自由主義를 □□함에 있어서 字義만에 依據한 空虛한 概念規定을 避하여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을 언제나 市民社會와의 關聯에서 보아 가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元來 自由主義라는 하나의 精神은 그의 誕生부텨이 벌써 完全히 市民的인 하나의 主義이기 때문이다. 말할 必要조차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過去及 現在의 自由主義의 解明에 限해서만 通用될 말이고 決코 未來에 關한 말은 아니다. 事實 將次 市民社會와는 下等의 □□關係도 갖지 안흔 그러한 全然새로운 『非市民的』인 自由主義가 出現하지 안으리라고 누가 敢히 斷言 할 수 잇스랴!』概念이란 元來 그들 支持하고 잇던 그 現實의 變轉을 따라 必然的으로 內容에 變化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 아니엿는가. 그러하면 假令여기에 市民社會라는 이 現實의 永久性을 밋지안는 사람이어서 過去及 現在의 自由主義와는 質的으로 區別될 全然새로운 自由主義의 出現을 未來에 잇서 期行하고 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單純한 헛된 妄想이라고 簡單히 □□해버릴 수 잇을 것인가? 世界史는 다름 아닌 自由의 實現過程이라는 『헤-겔』의 말이 實로』言이 아니라면 市民社會는 果然 그의 最終形態일 수가 잇는가? 그가 보여준 自由란 果然 完成된 形態의 自由일 수 잇섯는가?

市民社會의 指導論理는 型式論理이다. 그러나 이 論理는 언제나 『甲은 非甲이 아니다』라는 矛盾律에 依據해서만 成立될 수 있는 論理이니만큼 이 社會形態가 되어 줄 수 있는 最上의 自由도 結局은 언제나 甲의 自由는 乙의 不自由를 意味하며 統制 받드시 拘束맞게 못되는 그러한 形式 論理的인 自由맞게는 못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自由는 甲의 自由가 곧 乙의 自由이며 統制가 곧 解放인 러한 이를테면 辨證法인 自由는 못되는 것이다.

이러한 『完成된 自由』 『辨證法적인 自由』는 그러나 元來 利害가 不同하며 따라서 社會的 分□가 不可避한 社會形態에 잇서서는 바랄길이 업는 自由일 것인 以上 市民的인 自由가 自由의 最終的인 完成態가 못될 것은 自명한 事實에 □할 것이며 따라서 將次보담 더 完成的인 自由의 實現을 擔當 할 新事態及이에 支持될 새로운 自由主義의 出現을 待望한다는 것은 오히려 現代人으로서 當然히 가져야만 될 하나의 □□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에서 自由主義의 解明은 언제나 이것을 市民社會와 尼 關係에서 봄이 업시는 잇슬 수 업다고 말한 말도, 事實은 單純히 過去及 現在의 自由主義에 限해서만 通用될 말이고 決코 未來에 關한 말은 아니엇든 것은 말할 必要조차 업는 일이다. 우리는 다못 過去及 現在의 自由主義만은 적어도 市民社會와의 關聯을 떠나서는 그의 解明을 則 할 수 업다는 點을 特히 強調하고 심헛슴에 不過하엿쓸 뿐이다. 이 點을 特히 말해둔다.

以上 우리는 이러한 立場에서 自由主義의 解明을 試 할 作定이나, 먼저 우리는 人類의 歷史에 잇서서 언제부터 自由라는 觀念이 完全한 意味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 點부터 알아 볼 必要가 있다.

自由의 觀念은 『個人』과 함께 古代及 中世人의 잇서서는 □分한 意味에서 는 아직 볼 수 업섯든 近代 市民人의 □見이다. 하기는 古代及 中世人에서도 『自由』란 全然 『存在』하지 안엇던 것은 아니다. 그러치 안타면 奴隸 외 自由民, 農奴와 貴族及 僧侶의 區別조차 앗섯슬 理가 萬無하니까. 그러나 個人의 解放이 업는 觀念이 잇섯슬 뿐이다. 實로 古代人의 全生活을 支配한 根本觀念은 『自由』가 아니라 反對로 『運命』이 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自由』는 거기서는 存在는 하엿스나 自覺되지 못하엿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아직 運命 속에 汲히 □□된 채로 남아 잇섯슬 따름에 不過하엿든 것이다. 이것은 人類의 始祖인 『아담』이 일즉이 行□ 할 수 잇섯든 最初의 自由가 原罪라는 하나의 運命을 비저 냄에 窹치고 말엇다는 暗示 汲흔 이야기에 비취여 보드래도 自然 首肯됨 性質의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原始□□□의 □□說 『피타고라스』.....(이하 원문해독불가).....

主人公들이 自己와는 下等의 關係도 가짐 업는 祖先의 비□過의 遺傳 때문

에 얼마나 無故하게 □□된 運命에 시달렸든가! 이것은 中世를 一貫하여 支配한 基□□에 잇서서도 드를 배 업다. 모-든 人間은 始祖 『아담』의 罪를 『運命的으로』 밧엇다는 것은 基□教歷史的 哲學의 根本□□가 아닌가! 實로 이처럼 運命의 觀念이야 말로 古代及 中世人의 全生活을 支配한 根本 觀念이엇든 것이다. 그리기 때문에 일즉이 『셸링그』도 世界史의 哲學的 構成을 運命, 自然□理, 三段階을 나눔에 잇서서 運命을 特히 人類의 最初 段階에 配□하지 안을 수 업섯든 것이다. 그러나 그리면 大體 이처럼 古代及 中世人의 中心概念이엇든 運命이 如何한 論理的 過程을 밧어 近代 市民人에 니르러서는 『自由』로 轉身 할 수 잇섯든 論理的 根據는 어느 곳에 숨어잇섯든 것인가? 이것을 알기 爲하여서는 우리는 좀 더 詳細히 運命概念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